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을 꿈꾸는가?』에 나타난 인간과 기계의 공존

류다영
중원대학교 교양대학

Coexistence of Humans and Machines in *Do Androids Dream of Electric Sheep?*

Da-Young Ryu
College of Liberal Arts, Jungw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과학소설의 다양한 형식과 새로운 문학적 처리에 초점을 맞추어 출간된 필립 K. 디크의 소설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을 꿈꾸는가?』를 바탕으로 인간과 기계의 공존 문제를 탐구하였다. 디크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문제를 통해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역할에 대한 재고를 유발한다. 소설은 인간이 일으킨 전쟁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이 환경파괴를 가속화시켰음을 알리고, 이로 인해 지구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디스토피아적인 상황은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의 결과이며, 인간의 이기심과 비인간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기계와 인공지능의 계속된 발전은 인간과 기계의 공존 필요성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기계가 인간과 유사해질수록 인간의 정체성과 가치는 다시 한번 깊게 고찰해 보아야 할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문학과 과학기술 분야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개선 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논의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인간과 기계 간의 공존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토론과 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coexistence of humans and machines with focus on various forms of science fiction and new literary approaches, based on Philip K. Dick's novel *Do Androids Dream of Electric Sheep?* Dick raises fundamental questions about humanity through issues related to technological advancements and prompts a reevaluation of the role of humans in modern society. The novel portrays how human-induced wars and scientific progress accelerate environmental destruction and the Earth's collapse, thus illustrating the consequences of human selfishness and inhumanity. However, the ongoing development of machine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emphasizes the need for human-machine coexistence. The increasing similarity between machines and humans challenges us to reflect profoundly on human identity and value. Addressing these issues requires close collaboration between the humanities and technological disciplines and ongoing discussion and research to identify means of continuous improvement. The coexistence of humans and machines is becoming increasingly crucial and necessitates constant dialogue and research to drive sustained progress.

Keywords : Androids, Coexistence with Machines, Human Identity, Science Fiction, Philip K. Dick

이 논문은 중원대학교 교내학술비 지원에 의한 것임. (과제관리번호: 2021-013)

*Corresponding Author : Da-Young Ryu(Jungwon Univ.)

email: modestar99@jwu.ac.kr

Received September 18, 2023

Revised October 25, 2023

Accepted November 3, 2023

Published November 30, 2023

1. 서론

미래에 대한 재미있는 공상 이야기로 치부되어왔던 과학소설(Science Fiction)은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조금씩 변화되어 갔다. 전통적인 문학과 추리소설 등의 다양한 형식을 결합하고, 그 경계를 해체하면서 새로운 현대 문학으로써 자리매김한 것이다[1]. 이러한 과학소설에 좀더 깊이 있는 내용을 가미하게 된 작가가 바로 필립 K. 딕(Philip K. Dick 1928-1982)이다. 그는 과학적인 요소와 철학적인 내용을 융합한 작품으로 유명하며, 그의 생애 동안 36편의 장편소설과 100편 이상의 단편을 썼다. 딕의 작품은 대개 인간의 심리적, 철학적, 그리고 사회적 문제를 다룬다. 그의 작품 중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을 꿈꾸는가?』(Do Androids Dream of Electric Sheep? 1968)(이후 『안드로이드』로 줄여 표기함)는 문학적으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으며, 과학소설계 작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영향을 끼쳤다. 이 작품이 가지는 문학사적 의미는 미국 과학소설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난해하면서도 풍부한 비유와 상징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1]. 그는 주로 외부 세계를 향한 개척, 탐험, 모험 등의 서사보다는 인간의 내면을 사유하고 탐구하는 철학적이면서도 형이상학적 주제를 주요 관심사로 가졌다[2]. 딕은 단순히 과학기술적인 면에서 유토피아 세계를 그리기보다는, 그 안에서의 인간 내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며 인간이란 무엇이고, 그리고 기계는 무엇인지에 대한 존재론적인 문제에 답하려 노력했다. 즉, 그의 작품은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살아가는 인간들의 고통과 복잡성을 다루면서,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로 인해 딕은 현대 SF 작가들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1968년 출판된 『안드로이드』에서 딕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통해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하고 있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안드로이드는 행동하는 면이나 사고하는 면에서 인간과 흡사하여 둘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 안드로이드가 외적인 면에서만 인간과 유사한 것이 아니라 자아와 감정(물론 이식된 기억에 의한 감정일지라도)을 가지게 되면서 인간과 거의 구분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기계의 발전에 더 나아가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인간과 기계 사이의 경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인간이란 존재는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만든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딕의 소설 『안드로이드』에서 제시하고 있는 디스토

피아적 세계는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를 분석해보고, 이러한 사회에서 인간과 기계는 어떻게 구분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며, 이러한 구분 방법이 적절한지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이 기계와 조화롭게 공존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은 이루기 위해서 작품을 자세히 분석함과 동시에 그동안 연구되어 왔던 연구논문을 살펴보고, 여러 학자들의 이론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딕의 『안드로이드』를 연구한 최근 주요 연구논문은 다음과 같다. 이준희(2017)는 소설에 나타난 인공지능의 문제를 통해 그 안에 투영된 인간의 다양한 욕망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인간 존재의 근원에 대해 성찰하고 다가올 인공지능시대에 인간성 회복 및 조화와 통합을 위한 실천적 방법을 제시하였다. 김경옥(2011)은 소설 속에 나타나는 종교적 비전인 ‘머서주의’를 통해서 작가가 가지고 있는 인간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고찰하였다. 머서주의는 전통적인 종교적 가치를 해체하며, 불가능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진정한 본질을 받아들이기 위해 살아남는다고 하였다. 박옥경(2005)은 소설 속 디스토피아적인 요소를 영화 ‘블레이드러너’와 비교하며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인간이 기술과 과학 시대에 어떻게 비인간적이고 기계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하였다. 이와 같이 그 동안 연구되어진 논문은 기계의 발달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인간과 기계의 차이점에 초점을 맞추어 논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점과 문제를 극복하여 어떻게 인간과 기계의 공존에 대해서 다룬 논문은 흔치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딕의 소설 『안드로이드』의 작품 분석을 통해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인간과 기계가 공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본론

2.1 디스토피아적 세계

『안드로이드』는 핵전쟁이 발생한 후 디스토피아적 세계가 되어버린 2021년의 지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과거의 이야기로 볼 수 있지만, 이 소설이 작성되던 1968년의 시점에서는 아주 먼 미래 사회이다. 소설 속 2021년의 지구는 세계 핵전쟁이 발발한 후 지구를 뒤덮은 핵 방사능 낙진으로 인해 인간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폐허가 된 죽음의 세계로 변한 모습이다. 인간은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식민지 행성을 개척하고 대부분 그 행성으로 이주한다. 지구에 남은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한 상태가 되었으며, 방사능 낙진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방사능 미세먼지가 섞여 회색을 띤, 햇빛마저 흐리게 만드는 아침 공기가 그를 에워쌌다. 이 공기가 코로도 침투해서, 그는 자기도 모르게 죽음의 냄새를 맡고 맡았다. 음, 공기에 대한 묘사로는 너무 지나친 말인지도 몰라. …… 최종세계대전의 유산도 점차 그 영향이 감소되었다. 낙진에 살아남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 해 전에 땅 각 속으로 사라졌고, 이제 남은 것은 더 강한 생존자들과 더 약해진 낙진으로, 오로지 그들의 정신과 유전적 특성을 혼란시킬 뿐이었다. 납 국부보호대에도 불구하고 낙진은 (의식의 여지없이) 그에게, 그리고 그의 몸속으로 스며들어 왔고, 그가 이면에 실패하는 한 계속해서, 매일같이 그를 치욕의 좁은 길로 데려가고 있었다. 아직까지 그는 매달 받는 의료검진에서 ‘정상’으로 판정받았다[3].

결국 인간이 저지른 핵전쟁으로 인해 지구의 환경이 파괴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방사능 낙진으로 인해 동식물뿐 아니라 인간도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린 것이다.

아울러 오늘날은 그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혹시 거기에서 누가 이기거나 지거나 했다고 치면) 누가 이겼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다. 지표면 대부분을 오염시킨 낙진은 어떤 한 나라에서 유래한 것도 아니었고, 어느 누구도(심지어 전시의 적들조차도) 그런 결과를 의도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율폐미들이 죽어나갔다. …… 중세의 흑사병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즉 수많은 쥐들이 죽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의 전염병은 저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었다[3].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누가 이기고 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지구가 되어버린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식민지 행성으로 이주한 인간은 그들이 외계 행성에서 살아가기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인간과 유사한 안드로이드를 제작한다. 안드로이드는 화성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되며 외계 식민지에서만 거주하도록 지정되지만, 안드로이드가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가려 식민지 행성을 떠나 지구로 들어와 인간처럼 가장하고 몰래 살아가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인간은 지구에 남아 있는 안드로이드를 불법적이고 위험한 존재로 여기고 제거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소설의 주인공 릭 데커드(Rick

Deckard)는 지구로 도망쳐 나온 안드로이드를 색출하여 제거하는 사냥꾼의 임무를 맡고 있다. 그는 안드로이드를 살해자로 표현하며 이들을 추적하고 제거한다.

릭 데커드의 입장에서는 도주한 인간형 로봇이 딱 그러했다. 그런 로봇은 주인을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인간보다 더 뛰어난 지능을 장착하고, 동물에 관해서는 아무런 고려도 하지 않으며, 다른 생명체의 성공에 대한 감정이입의 기쁨이라든지 또는 패배에서 비롯된 감정이입의 슬픔을 느끼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그가 보기에는 이것이야말로 ‘살해자’의 전형이었다[3].

안드로이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며, 정확하게 말하면 ‘넥서스-6 안드로이드(Nexus-6 android)’라고 명명되는, “두뇌 장치는 무려 2조 개의 구성 요소들, 또는 1천만 개의 서로 다른 신경 경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성능[3]”을 갖춘 “(열등한) 일부 인간들을 능가하여 진화한[3]” 존재이다. 하지만 이들은 온전히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자본주의의 상품이자 소모품으로 생명체가 아닌 존재로 취급받는다. 이들은 소설 속 TV 방송에서도 언급되고 있듯이, 남북전쟁에서의 흑인 노예와도 같은 존재로 표현된다.

“- 남북전쟁 이전의 남부 주들의 전성기를 그대로 복제했습니다! 개인 시종으로나, 지칠 줄 모르는 농장 일꾼으로나, 주문 제작식 인간형 로봇을, 여러분의 특별한 요구에 맞춰서, 여러분을, 오로지 여러분만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로봇을, 여러분의 도착과 동시에 완전 무료로. 여러분이 지구를 떠나기 전에 구체적으로 요청한 사항대로 완성하여, 여러분께 드립니다. 현대 역사에서 인간이 고안한 것 중에서도 가장 위대하고 가장 대담한 모험에 함께할 이 충성스럽고도 고장 없는 동반자는 여러분께 -” 이런 식의 광고가 계속되었다[3].

안드로이드는 인간의 요구에 맞게 설계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주문 제작식 상품인 것이다. 광고에서 언급한 “남북전쟁 이전의 남부 주들의 전성기를 그대로 복제[3]”하였다는 것은 예전의 노예제도를 그대로 복제했다는 것이며, 이때 안드로이드가 노예와 같이 충성스럽고도 지지 않고 고장이 없는 동반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설정은 미국역사에 있어서 인디언 원주민이나 흑인 노예를 차별화하는 백인 우월주의 및 인종차별주의적 시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소설은 현재에

도 여전히 존재하는 지배와 피지배의 착취구조를 비판하고 있다[4]. 노예제도가 존재했던 전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노예는 살아있는 물건으로 취급되었으며, 도망간 노예는 다시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존재하기도 했다. 따라서 노예가 자신의 신분을 탈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음뿐이었다[5].

안드로이드를 노예와 같은 신분으로 취급하여 인간이 이들을 지배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근원은 인간이 모든 만물 중에 제일 우수하다라는 차별적 시각에 기인한다. 따라서, 안드로이드가 행사하는 폭력은 그들이 노예로서의 삶을 거부하고, 그들이 받은 억압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들의 이상행동은 프로그램의 고장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인간의 노예와 같은 삶에서 벗어나고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안드로이드는 그야말로 “잔혹한 악의 존재라기 보다는 불행한 타자로서의 역할[6]”이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인해 전쟁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환경이 파괴되어 더 이상 인간이 살 수 없는 지구를 만들게 된다. 그리고 필요에 의해 인간과 유사한 안드로이드를 만들어 노예처럼 취급한다. 하지만, 안드로이드가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가려 지구로 도망을 가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사냥꾼들이 이들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폭력이 발생하게 되어 폭력의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묘사하며, 작가는 결국 디스토피아적인 세계를 만드는 원인은 인간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2 인간-기계 경계의 모호성

『안드로이드』에 등장하는 안드로이드는 외적으로 인간과 거의 구별이 되지 않을 만큼 완벽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 이들의 외형이나 행동을 통해서는 인간과 구별하기 매우 어렵다. 소설에 등장하는 안드로이드 레이첼(Rachael)은 인간과 구별되지 않는 외모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과 똑같이 행동하여, 실제로 그녀를 만난 사람들은 그녀를 인간으로 오인하기도 한다.

외형적인 면에서 인간과 비슷하다고 하여 우리가 안드로이드를 인간과 동등하게 대할 수 없는 이유는 오랜 형이상학적 전통에 의하여 마음과 몸의 이분법에 근거한 사고가 있기 때문이다. 즉, 마음(감정)을 인간이 존재하는 본질적인 요소로 보고 있어 몸(신체)에 비해 가치론적 우위를 두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레이첼은 데커드가 안드로이드를 사냥하는 것을 도와주기로 하며 대화를 하는 중 “빌어먹을. 내가 나 자신에게 감정이입을 하고 있네요

[3].”라며 자신이 마치 인간처럼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표현한다. 레이첼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사랑을 느끼고, 자신의 생명에 대한 공포와 사망에 대한 두려움도 느끼는 등 인간과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레이첼은 데커드에게 아이를 가지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태어난다는 것은 어떤걸지를 궁금해하며 묻는다.

“사실 모르겠어요. 그걸 내가 알 도리는 전혀 없죠.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그건 그렇고, 태어난다는 것은 또 어떤 느낌일까요? 우리는 태어나지 않아요. 자라지도 않죠. 병에 걸리거나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개미처럼 닳아서 망가지죠. 우리는 바로 그런거예요. …… 나는 살아 있지 않아요[3]”

레이첼은 자신이 인간이 아니라는 인식을 지각하면서 자신에 대한 불확실한 정체성을 인식한다. 안드로이드를 제거하지 못하도록 데커드를 회유하지만 결국 데커드가 안드로이드를 제거하자 그녀는 데커드의 염소를 옥상에서 떨어뜨려 죽게 만드는데, 이러한 레이첼의 모습에서 안드로이드의 감정적 변화를 살펴볼 수 있고 이들이 인간과 구별되지 않는 존재로서 인간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간만이 가진 전유물로 여기던 사고와 감정이라는 요소가 더 이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가중된다.

레이첼을 포함한 안드로이드는 자신이 인간과 같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는데, 이는 안드로이드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단순히 외적인 모습만으로 인간과 안드로이드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데커드 마저도 레이첼이 단순한 기계가 아닌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말하게 된다.

“법적으로야 당신은 살아 있는 게 아니죠. 하지만 실제로 당신은 살아 있어요. 생물학적으로요. 당신은 저가 짜 동물처럼 트랜지스터가 들어 있는 회로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당신은 유기적 실체죠.” 그리고 앞으로 2년만 있으면, 그는 생각했다. 당신은 닳아서 고장 나고, 결국 죽게 되겠지. 전지 교체에 관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했으니까[3].

레이첼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데커드는 레이첼을 살아있는 존재로 여기고, 그녀를 되역시키는 것이 아니라 죽게 되는 것이라고 표현한다. 데커드는 안드로이드와도 감정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레이첼은 만약 자신을 죽이게 되면 아프지 않게[3] 해달라고 부탁하

는데, 안드로이드가 고통까지도 느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인간의 존재가 다른 존재와 구별되는 차이점은 사고하는 능력과 감정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지만 이 소설에 등장하는 안드로이드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감정을 지니고 있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유하는 능력을 지니는 등 인간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 이지도어가 같은 건물에 사는 프리스와 나눈 대화에서처럼 안드로이드는 기쁨, 슬픔, 분노와 같은 감정을 체험할 수 있으며, 자신의 존재와 존엄성, 그리고 외로움에 대해 생각하고 느낄 수도 있다. 이처럼 안드로이드들이 그들 자신의 자아와 감정을 가지게 되면서 이들과 인간 사이의 경계는 더욱 모호해진다.

게다가, 소설에서는 안드로이드와 인간들 사이에 감정적인 유대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다. 인간들은 안드로이드를 위해 감정적으로 연민을 느끼고, 안드로이드들 역시 인간에 대한 애정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역할의 대표적인 안드로이드가 레이첼이다. 그녀는 로젠 연합에서 이주 희망자에게 보여주는 견본품 안드로이드이지만, 그녀는 다른 안드로이드가 지니고 있는 잔인함과 난폭함과 같은 기계적 특성보다는 삶의 의지와 공동체적인 연대감을 가지고 있다[1]. 레이첼은 안드로이드 사냥꾼인 테커드와 잠자리를 하면서까지 안드로이드 추적을 단념시키려고 한다.

안드로이드의 공동체적 연대감은 로이(Roy), 임가드(Irmgard), 프리스(Pris)가 살아남기 위해 인간인 이지도어(Isidore)를 믿고 함께 지내도 되는지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부분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격식을 갖춰서 투표가 이루어졌다.
“우리는 여기 머무는 거야.” 임가드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 집에. 이 아파트에.”
로이 바티가 말했다. “나는 이지도어씨를 죽이고, 다른 어딘가에 숨는 쪽에 투표하겠어.” 그와 그의 아내는(그리고 존 이지도어도) 이제 긴장하며 프리스를 바라보았다.
프리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우리가 여기 머무는 쪽에 투표하겠어[3].”

이들이 이지도어와 함께 머물겠다는 결론을 내게 되는 상황에서는 인간과 기계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식이 만들어지게 된다.

인간과 기계의 공동체의식과 상호작용은 안드로이드와 인간 사이의 경계를 더욱 모호하게 만든다. 안드로이드는 단순한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이 아니라 인간의 모

습을 반영하는 ‘또 하나의 인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1]. 아무 잘못이 없는 안드로이드를 제거하는 테커드는 어느 순간 안드로이드에게도 영혼이 있는지를 궁금해하며, 자신의 일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기도 한다.

덕은 인간의 사고와 감정이라는 것이 미묘하고 복잡한 것으로 인간과 안드로이드를 구분지을 수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인간을 규정하는 중요한 원칙으로 보고 있다. 소설 속에서도 사고와 감정을 인간의 중요한 특질로 보고 있지만, 인간을 완벽하게 복제해내기 위해 인간의 욕구와 필요 또한 안드로이드에 반영되고 있다. 따라서, 『안드로이드』에서는 진짜 인간과 가짜 인간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구별을 위해 인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감정’이라는 문제에 집중한다. 포스트휴먼의 대두,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의 현실화는 인간만의 고유한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감정’이라고 함으로써, 감정을 논의의 한 가운데에 던져놓는다[7]. 인공 기억까지 심어져 있어 스스로가 진짜 인간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안드로이드와 인간을 구분하는 방법은 보이트 캠프 감정이입 검사(Voight-Kampff Empathy Test)뿐이다. 테커드가 안드로이드를 색출해낼 때도 이 검사를 사용하는데, 이 검사의 질문은 대부분 동물과 관련되어 있다.

“당신은 TV에서 옛날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전에 나온 영화죠. 그 영화에서는 연회가 한창 진행중입니다. 주 요리는 …… 속에 쌀을 넣고 폭 삶은 개고기였습니다.”
“개를 죽여서 먹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루바 루프트가 말했다. “그 가격만 해도 한 재산은 되니까요. 그러니 그런 가짜 개 같은데요. 모조품이요. 맞죠? 하지만 그런 개라면 전선과 모터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먹을 수가 없겠죠[3].”

동물에 관련된 질문을 받을 때 동공의 확대와 얼굴의 변화 정도를 확인하여 인간과 안드로이드인지를 구별하는 것이다. 이 검사가 질문을 받는 상대방으로부터 얻어 내려는 감정은 스스로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수치심이다. 소설에서 동물은 단순히 인간의 도덕성을 보증해주는 대상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황폐한 지구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8]. 인간은 동물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자신들의 무책임에 의해 거의 멸종된 동물에 대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무의식적으로 수치심을 느끼지만, 안드로이드는 지구의 멸망이 자신들의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그들은 화성에서 지구로 도피를 한 것이

기 때문에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못한다. 따라서 그들은 이 감정어입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다. 게다가, 안드로이드의 정서와 감정이라는 것은 학습한 두뇌 작용으로 인한 것이므로 기억을 소환하는데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그 시간의 차이를 감지하여 이들이 안드로이드라는 것을 구별해낸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어입 검사가 과연 인간과 안드로이드를 구별하는 척도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주인공 테커드와 그의 아내 아이랜(Iran)은 감정 오르간(mood organ)이라는 일종의 감정 조절기를 통해 본인이 설정한 기분으로 아침을 맞는다.

그는 아내의 옆에 앉아 그녀에게 몸을 숙이고 부드럽게 설명했다. “전기 자극을 어느 정도 높게 설정해놓으면, 당신도 잠에서 깬을 때 기분 기본이 들 거야. 그게 바로 핵심이라고. C로 설정해놓으면 의식의 문턱을 넘어설 거야. 그게 나한테 해준 것처럼? 친근한 태도로(그는 지금 세상을 향해 호의적인 기분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는 모두 그의 설정이 D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아내의 벌거벗은, 창백한 어깨를 토닥였다[3].

가장 사적이고 미묘한 개인의 심리 영역에 기계가 개입했다는 자체가 황폐화된 인간의 심리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이 감정 오르간은 소설에서 제기하는 인간과 안드로이드를 구별하는 근본적인 기준에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안드로이드와의 구별 척도로 감정이입능력을 들고 있지만, 정작 인간도 기계에 의존하여 자신의 감정을 선택한다는 것이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리 모콘으로 체널을 바꾸듯이, 다이얼을 돌려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감정을 인간의 감정이라 할 수는 없으며, 미리 정해둔 감정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정 오르간의 힘을 빌어 얼마든지 감정을 변경할 수 있을 때, 인간의 감정은 실재없는 시뮬라크르와 같은 것이다[9]. 인간이면서도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인간들[10]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인간의 유일한 특징으로 제시한 가정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아이랜도 “처음 생각한 건 우리가 펜필드 기분 조절 오르간을 살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였어. 하지만 끝이어나는 이게 얼마나 건강에 좋지 않은지를 깨달았지. 나는 생명의 부채를 감당한 거야[3].”라고 말하며 이러한 감정 조절기를 통해 인간의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생명이 없는 안드로이드와 다름이 없음을 표현한다.

소설에서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은 이지

도어이다. 그는 가짜 동물 수리점에서 일하는 ‘특수인’이다. 지구에 남겨진 인간은 방사능의 오염 정도에 따라서 ‘일반인(regular)’과 ‘특수인(special)’로 인간을 분류되는데, 그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해 정신능력이 퇴보된 특수인이다. 이지도어는 자신이 사는 건물에 본인의 집을 제외하고는 온통 키플(쓸모없는 물건)화 되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안에서 특수인으로 사는 이지도어도 키플화가 되어 가고 있음을 반어적으로 보여주는 듯 하다. 그는 가짜 동물에게도 관심과 애정을 보이며, 안드로이드를 도와주면서 자신도 남을 도울 수 있는 존재라는 점에 기뻐한다. 그는 안드로이드가 지구에서 편하게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그들과 함께 있는 지금이 인생 최고의 시기처럼 느끼기도 한다. 이지도어는 프리스가 안드로이드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지만, 테커드가 그녀를 죽이자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인물이다.

아파트의 적막 속에, 꼼짝도 않는 물체들 사이에 그렇게 앉아 있노라니, 특수인 이지도어씨가 문간에 나타났다. “안 보는게 좋을 텐데.” 릭이 말했다. “계단에서 그녀를 봤어요. 프리스를.” 특수인은 울고 있었다[3].

소설 속에서 안드로이드가 테커드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냥꾼을 공격했다는 내용이 언급하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안드로이드가 인간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은 묘사되어 있지 않다. 안드로이드의 잔인성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은 이지도어가 우연히 거미를 발견하는 장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지도어는 살아있는 거미를 발견하고 기뻐하지만, 안드로이드인 프리스와 임가드는 단순히 거미의 다리를 몇 개 제거하여도 걸을 수 있는지를 보려고 거미 다리를 잘라낸다. 이지도어가 죽이지 말라고 부탁하지만, 거미의 다리를 잘라낸 뒤 미소를 짓는 프리스의 모습과 거미에게 성냥불을 가져가는 로이의 모습에서 생명 존중에 대한 인식이 없는 안드로이드의 비인간적이고 기계적인 본성을 볼 수 있다.

“그 녀석 다리를 자르지 말아요.” 그는 숨을 헐떡이며 애원했다. 프리스가 가위로 거미 다리 하나를 잘라냈다. …… 프리스가 또다시 다리 하나를 잘라냈다. 그녀는 손끝으로 거미를 꼼짝 못하게 누르고 미소 짓고 있었다. …… “내가 견게 만들 수 있어.” 로이 바티가 종이 성냥갑을 꺼내 성냥 하나를 집어 들고 불을 붙였다. 그러고는 거미에게 불을 갖다 댔다. 더 가까이. 굵기야 그놈이 열기를 피해 힘없이 기어갔다[3].

이들의 모습에서 주인공 테커드가 우려한대로 감정이 입과 교감을 할 수 없는 전형적인 약탈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하지만 이러한 그들의 약탈자적인 모습에서 역으로 독자는 인간의 잔인함을 깨닫게 된다. 안드로이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그대로 모방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잔인하고도 악한 면모까지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악행은 인간에게서 야기된 것이므로 결국 이것은 인간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디의 『안드로이드』는 기존의 고딕소설에서 보여지는 괴물과도 같은 기계 인간의 잔인함과 인간에 대한 적대감을 묘사함과 동시에 인간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안드로이드의 이미지를 창조하였다. 뛰어난 지능과 인간적인 외모를 지니며 인간들과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그들이 보유한 지능과 감정의 범위는 인간의 것과는 크게 다르지 않아 인간은 자신의 존재가치를 고민하게 된다. 안드로이드가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고 인간의 존재가 위협받게 되는 상황에서, 인간은 자신이 진정한 의미에서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된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간과 기계의 공존이 활발하게 된 현대사회에서 인간과 기계의 공존 문제에 대해 다시 깊게 생각하도록 만든다.

2.3 인간과 기계의 공존

소설의 시작에서 묘사되는 테커드와 아이랜의 모습은 인간의 메마른 내면세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에게서는 사랑하는 부부의 모습보다는 서로 적대하고 미워하는 관계로 표현된다. 이상하리만큼 긍정적인 테커드와 상대적으로 생각없고 무기력한 아이랜은 양극화된 현대인들의 극단적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메마르고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인간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 동물을 키우는 것이다. 인간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아닌 동물을 그 대체로 하고 있다는 점이 다소 냉소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환경파괴와 오염으로 인해 실제 동물들은 멸종에 가까운 상태이기 때문에 가짜 동물을 키우는 상황이다. 인간은 자신이 가짜 동물을 키우는 것을 숨기려 하고 마치 진짜 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은 기술적 발전을 통해 진짜와 유사한 가짜 동물과 식물을 만들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환경을 더욱 파

괴하는 행위이며 인간과 안드로이드 사이의 구분을 더욱 모호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 결과 인간은 자연과의 균형을 잃고 이상한 교류를 하게 된다. 소설 속에서는 진짜 동물이 개인의 사치품이자 경제적 권력의 상징으로 표현된다. 가짜 동물을 소유하고 기르는 일은 사람의 사기를 점차 저하시키는 면이 있으며, 진짜 동물을 키우지 않는 것은 경제적 무능력을 보여주고 인간임을 포기하는 행위처럼 비춰진다.

“그 돈을 저축했더라면.” 그가 말했다. “그랬더라면 우리도 지금쯤은 진짜 양을 한 마리쯤 사서, 위에 있는 가짜 양을 대신할 수도 있었겠지. 기껏해야 전기 동물이라니. 최근 몇 년 동안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오면서 벌 수 있는 돈은 모두 벌었는데도[3].”

동물은 핵전쟁으로 피폐해진 지구에서 유행하는 사치의 상징이다. 살아 있는 동물을 보유한다는 것은 대단한 부의 과시이며, 심지어 동물이 없다는 것은 경멸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 주인공이 없는 형편에도 불구하고 ‘전기양’을 구입해서 체면치레를 해야 하는 것도 그래서이다. 테커드도 가짜 양이지만 이들과의 관계를 통해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느끼고자 한다. 상대방의 양이 진짜인지를 물어보는 것은 상대방에게 내부 장기 검사를 통해 안드로이드가 아닌 진짜 인간인지를 확인받았냐고 묻는 것보다도 더 무례한 행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테커드가 키우는 양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물어보거나 의심하지는 않지만, 그가 원하는 것은 진짜 살아있는 실제 동물을 키우는 것이다.

따라서 탈출한 안드로이드는 테커드가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매개체라고 볼 수 있다. 그가 안드로이드를 ‘퇴역(retire)’시키면 현상금을 받기 때문이다. 테커드를 포함한 안드로이드 사냥꾼은 많은 안드로이드를 퇴역시키면 시킬수록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안드로이드 색출에 나서게 된다. 여기에서 안드로이드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 ‘살해(kill)’가 아니라 ‘퇴역(retire)’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는 소설에서 다루어지는 안드로이드가 사회적 존재인 것처럼 잘못 취급되는 물건이 아니라 물건인 것처럼 잘못 취급되는 사회적 존재라는 포스트휴머니즘적 사변적 윤리에 입각한 견해가 있다[7]. 테커드가 안드로이드를 퇴역시키는 표면적인 목적은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이는 결국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그 기준을 정당화한 것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인간성의 일부가 떨어져나가는 것으로, 테커드가 현상금 사냥꾼으로

서 안드로이드들을 하나씩 제거해나갈수록 성취감보다는 웬지 모를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11].

이처럼 소설은 미래사회에서 인간의 필요에 해 인간과 기계가 공존할 수 밖에 없음을 예견하고, 여기서 인간과 기계를 명확히 구분하려 하지만 인간성이 상실된 인간과 자아와 감정을 가지게된 기계가 공존하게 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이러한 구분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간과 유사한 기계와 공존하게 되는 상황은 아주 먼 미래의 일이 아닐 수 있다. 실제 인간 몸의 기능이 상실되었을 경우 기계를 부착하는 등의 일은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레이(Chris Hables Gray)는 의학을 통해 인간을 개조하는 일이 일상화되어 있다고 하며, 지방을 흡입하거나 삽입하고 더 나은 외모를 만들기 위해 얼굴을 조각하고 면역 체계를 증진시키는 등 타고난 몸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수백만 건의 개입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12]. 이는 단순히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반신불구자를 위한 하반신 인공기관부터 뇌 신경 조종기, 인공 달팽이관과 같은 기계를 부착한 인간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해준다. 그는 이러한 사람들은 살아있지만 죽은, 생명조력장치 부착형 사이보그들이라고 불렀다. 소설 속의 완전한 안드로이드는 아니지만 인간과 안드로이드의 결합과도 같은 상태인 것이다. 그는 앞으로 인간의 난자와 정자까지 기계화되고, 디지털화되며, 상품화되고, 사이보그화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인지능력은 정상이지만, 신체를 거의 혹은 전혀 움직일 수 없는 희귀질환을 감금증후군이라 부른다[13]. 미국의 한 전기 기술자는 2001년 사고로 두 팔을 잃었지만, 생체공학 팔과 뇌에서 나오는 신경신호를 초소형 컴퓨터를 이용해 전기적 명령을 함으로써 팔을 움직일 수 있었다. 이처럼 우리는 기계와 밀접하게 공존하고 있으며, 하라리(Yuval Noah Harari)는 현재의 호모 사피엔스(인간)가 완전히 다른 존재로 대체되는 시대가 곧 올 것이라고 예견한다[13].

해러웨이(Donna J. Haraway)는 현대의 과학소설이 사이보그-모호하게 자연적이며 만들어진 세계들에 거주하는 동물이자 동시에 기계인 피조물들-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하며, 20세기말 기계들은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 정신과 육체, 자기 발전적인 것과 외부에서 기획된 것, 그리고 유기체와 기계에 적용되었던 여러 다른 구별들 사이의 차이를 철저히 모호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14]. 사이보그들은 우리와 같진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와

똑 닮았기 때문에 우리를 매료시킨다.

모든 사이보그 이미지는 기계와 인간의 암묵적인 대립을 구축하는 동시에 유사성을 억압하고 구별을 강조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이보그 이미지는 '인간'이라는 용어와 '인공물'이라는 용어 모두의 의미를 규정한다. 인간성의 기호들과 기계성의 기호들은 하이브리드의 이중적인 본성을 지닌 '본질'의 표식자들로서뿐만 아니라 인간과 기계의 불가침적 대립 기호들로서 기능한다. 그러나 사이보그는 양자 모두의 '본성'을 동시에 체현하기 때문에, 그 결과인 하이브리드는 순수한 인간도 순수한 기계도 아니다[15]. 인간성을 상실한 우리는 모두 사이보그와 다름없다고 주장하는 해러웨이의 사이보그 선언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과 기계의 구별은 더 이상 중요한 이슈가 아니다. 더 또한 소설을 통해 순수한 인간과 순수한 기계에 대한 구분을 하기 보다는 서로의 존재 가치를 이해하고 공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던 것이다.

하라리는 우리가 머지않아 스스로의 욕망 자체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아마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진정한 질문은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가?"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싶은가?"일 것이며, 이러한 질문이 섬뜩하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일 것이라고 그는 경고한다[13]. 더의 소설을 통해 우리는 인간과 기계가 공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측할 수 있으며, 이를 대비할 수 방법을 강구해야함을 알 수 있다.

미래 사회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간과 기계의 공존과 관련된 문제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인간은 기계와 조화로운 공존을 촉진하기 위한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인문학과 과학기술 분야의 적그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각 분야에서 노력해야하는 내용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1. The Role of Humanities and Science & Technology in the Coexistence of Humans and Machins

	Humanities	Science & Technology
1	Etical Considerations	Enhancing Safety and Security
2	Understanding Human Emotions	Emotion Recognition Technology
3	Communication Studies	Sustainable Technology
4	Historical Research	Education and training
5	Societal Reflection	Ethnical Guidelines

인문학은 기계의 윤리적 사용과 그에 따른 도덕적 문제에 대한 연구와 깊은 고찰을 촉진해야 하며, 인간의 감정과 상호작용에 대해 연구하여 이를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인간과 기계간의 더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개발하고, 과거의 기계와 인간의 관계를 조사하고, 이로부터 교훈을 얻어 현재와 미래의 공존을 개선할 수 있다. 인문학은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 이에 따른 정책을 제안할 수도 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안전한 기계 및 인간 기계 상호작용을 개발하고 보장하는 역할을 해야하며, 기계가 인간 감정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통해 보다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적 지속가능한 기술을 개발하여 인간과의 공존 방법을 제시해야하며, 인간과 기계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은 인간과 기계간의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가 공정한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인간과 기계의 공존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으며, 소설에서처럼 서로를 공격하고 죽이는 부정적인 상황이 아닌 도움을 주고 받는 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앞으로의 연구와 노력이 요구된다.

3. 결론

인간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인간과 비슷한 안드로이드 개발이 실제 가능하다는 사실은 인간에게 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다. 이러한 불안과 함께 예견되어질 문제점에 대해 지적인 소설이 필립 K. 딕의 소설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을 꿈꾸는가?』이다. 그는 인간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한 전쟁은 지구환경을 파괴하여 더 이상 인간이 살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으며, 인간의 편의로 만들어진 기계가 발달하여 인간과 비슷해질수록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견한다. 인간이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은 여러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며, 인간과 기계가 조화롭게 공존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만든다.

딕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통해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감

정’이라는 것이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것인지, 만약 안드로이드도 감정을 느끼는 존재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할 논의거리가 되었다. 외로운 인간을 돕기 위한 반러봇이 등장하고, 인공지능이 탑재된 ChatGPT와 인간이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현대사회에서 인간과 기계의 공존에 대해서 더욱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된 것이다.

인간의 욕망으로 인한 환경파괴는 메마르고 단절된 인간의 내면을 치유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딕의 소설을 통해 확인했다. 이러한 부정적인 상호작용은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기계와 함께 공존하는 미래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인간은 인간존재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야 하며,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인간과 기계 간의 공존이 어떻게 진화해 나아갈지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문학과 과학기술 분야 간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며,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방법을 발굴하여 함께 작업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인간과 기계 간의 공존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토론과 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이루어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References

- [1] K. O. Kim, "A Fundamental Question on Human Beings in Philip K. Dick's *Do Androids Dream of Electric Sheep?*", *The New Korean Association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Vol.53, No.2, pp.49-72, May 2011.
DOI: <https://doi.org/10.25151/nkje.2011.53.2.003>
- [2] K. O. Kim, "Science Fiction, Imagination and Religious Storytelling in *Do Androids Dream of Electric Sheep?* and *Ubik*.", *Literature and Religion*, Vol.25, No.2, pp.51-72, Jun. 2020.
DOI: <https://dx.doi.org/10.14376/lar.2020.25.2.51>
- [3] P. K. Dick, translated by J. S. Park, *Do Androids Dream of Electric Sheep?*, Flabooks Publishers, 2016, pp.1-408.
- [4] K. O. Kim, *A study of Philip K. Dick's Science Fiction: Culture, History, and Reality in the Novels and Short Stories of the 1950s and 1960s*, Ph.D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of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Seoul, Korea, p.112, 2010.
- [5] V. Cuffel, translated by N. J. Cho, "The Concept of Greek Slavery", *Western Classics Ancient Economy and Slavery*, Korean University Graduate School

- Institute of Western Ancient History Publishers, 1981, p.209.
- [6] J. W. Lee, *Technology and Destiny: from Cyberpunk to Philosophy*, Hangil Publishers, 2001. p.23.
- [7] S. Y. Park, "Examining the Differences between Human and Emotion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from the Aspect of Emotions: Focusing on 'Healing' and Do Androids Dream of Electric Sheep?", *The Society of Korean Cultural Convergence*, Vol.2018, No.6, pp.31-36, 2018.
- [8] J. Y. Chang, "Possibility of Passive Emotion in Philip K. Dick's *Do Androids Dream of Electric Sheep?*", *Studies in Modern Fiction*, Vol.18, No.1, pp.123-146, Mar. 2011.
DOI: <https://doi.org/10.22909/smf.2011.18.1.005>
- [9] O. K. Park, "The Vision of Dystopia in the Age of Technology and Science: *Blade Runner* and *Do Androids Dream of Electric Sheep?*", *English 21*, Vol.18, No.2, pp.43-67, Nov. 2005.
- [10] S. Y. Park, "Exploring the Coexistence of Huma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of Responsibility and Literary Imagination", *Journal of Ethics*, Vol.124, No.1, pp.17-35, Mar. 2019.
DOI: <https://doi.org/10.15801/je.1.124.201903.17>
- [11] I. C. Park, "Philip K. Dick's Kitsch World: Man, Machine, and Science Fiction in *Do Androids Dream of Electric Sheep?*", *The Korean Society of Modern English Fiction*, Vol.22, No.3, pp.129-152, Dec. 2015.
DOI: <https://doi.org/10.22909/smf.2015.22.3.006>
- [12] C. H. Gray, translated by K. Y. Seok, *Cyborg Citizen*, Kimyoungsa, 2016, pp.1-393.
- [13] Y. N. Harai, translated by H. W. Cho, *Sapiens*, Kimyoungsa, 2016, pp.586.
- [14] D. J. Haraway, translated by K. S. Min, *Simians, Cyborgs, and Women*, DongmunSun Publishers, 2002, pp.1-421.
- [15] A. M. Balasmo, translated by K. R. Kim, *Technologies of the Gendered Body*, Arche Publishers, 2012, pp.1-268.

류 다 영(Da-Young Ryu)

[종신회원]



- 2000년 2월 : 성균관 대학교 교육 대학원 영어교육학과 (교육학석사)
- 2017년 8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영문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중원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관심분야>

영미소설, 영미희곡, 영어교육, 문학과 치유, 문학과 젠더